팀워크 실종된 女팀추월, 거센 후폭풍

노선영 버린 김보름·박지우 인터뷰에 성난 민심

국가대표 자격박탈 청와대 국민청원 20만건 넘어

오늘 팀추월 순위결정·김보름 매스스타트 출전

19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 김보름,박지우 뒤 멀리서 노선영이 따라 붙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팀워크를 상실한 경기력에 인터뷰 논란까지 불거졌다.

노선영(29·콜핑팀), 김보름(25·강원도청), 박지우(20·한국체대)로 이뤄진 대표팀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분03초76을 기록, 8개 팀 가운데 7위에 머물러 탈락했다.

저조한 순위는 차치하고 팀추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애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3명이 나란히 달리는 팀추월 경기는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을 두고 경쟁한다. 에이스 혼자 빨리 탄다고 해서 기록이 좋은 게 아니다. 3명이 호흡을 맞춰 체력을 조절하며 레이스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대표팀은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 노선영을 제외한 김보름, 박지우만 앞으로 치고 나갔다.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은 큰 격차로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특히 김보름은 레이스를 마치고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동료 탓을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보름은 "저희가 다시 이렇게 같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팀추월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시합을 출전하게 됐는데 중간에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네, 뒤에 조금 저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뒤에'는 노선영을 의미한다. 노선영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노선영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 착오로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뻔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류했지만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를 배려하지 않고 팀워크조차 없었던 대표팀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보름의 인터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보름은 SNS 계정마저 닫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빙상경기연맹의 엄중 처벌에 대한 청원과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재 20일 오후 2시까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왜 이런 상황까지 번졌을까. 일부에선 약 1개월 전 노선영의 인터뷰를 주목하고 있다.

노선영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던 지난달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10일 월드컵 4차 시기 이후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팀추월 남녀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빙상연맹이 유력한 메달 후보인 김보름 등 몇몇 선수들만 한국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하게 하는 등 파벌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노선영이 극적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지만 당시 내부고발성 발언이 선수들 사이에서 불화로 확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표팀은 21일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김보름은 매스스타트에서 유력한 메달 후보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뉴시스

'깜짝 은메달' 따낸 차민규 0.01초 차이란? "짧은 다리"

1위에 불과 0.01초 차이…"상위권 목표 달성만으로도 감사"

깜짝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25·동두청시청)가 '0.01초'를 아쉬워했다. 차민규는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34초42를 기록, 34초41의 하바드 로렌첸(노르웨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케이시 피츠란돌프(미국)가 세운 올림픽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차민규는 전체 18개조 중 14조에서 뛰었다. 뒷 조는 4개, 차민규의 금메달도 예상됐다. 그러나 15조에서 로렌첸이 34초41을 찍으며 차민규를 0.01초 앞섰다.

차민규는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즐거워했다. 그래도 아쉬움은 감추지 못했다. "메달권이라고 생각했고 잘 하면 금메달이겠다 싶었는데, 다음 조에서 0.01초 차이로 깨졌다"고 곱씹었다.

차민규가 몹시 아쉽게 우승을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2017~18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대회에서 34초31을 기록했다. 자신의 최고기록이다.

당시 차민규는 캐나다의 알렉스 보이베르 라크루아(34초31)에게 간발의 차로 밀리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에도 차민규는 또 한번 0.01초 차이로 정상을 내줬다.

'0.01초'는 어떤 의미일까, 차민규는 "짧은 다리"라고 답했다.

"1등 순위가 바뀌고 나서 아쉬웠다. 그래도 내 목표는 상위권이었다. 그것 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데뷔전 우승 고진영, 랭킹 16위 도약…최혜진 '톱10'

고진영(23·하이트진로) 선수가 18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쿠용가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후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 우승을 거머쥔 고진영(23·하이트진로)의 세계랭킹이 4계단 상승했다.

고진영은 19일(한국시간) 발표된 롤렉스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3.78점을 기록하며 16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전날 호주 애들레이드 쿠용가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로 활약한 고진영은 지난해 10월 LPGA 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시드를 손에 넣었다.

올 시즌 LPGA 투어 진출을 선언한 고진영은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을 통해 데뷔전을 치렀고, 67년 만에 LPGA 투어 데뷔전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랭킹 20위권 진입에 성공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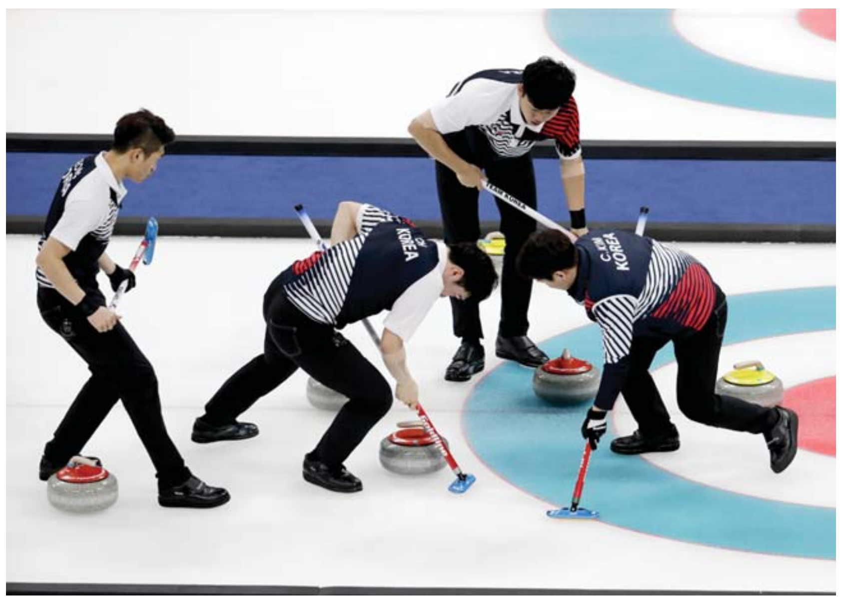
호주 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혜진(19·롯데)은 지난주보다 1계단 상승하며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려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2년 동안 불과 30개 대회에 출전하며 거둔 성과로 LPGA 투어를 주무대로 하지 않는 선수 중 가장 높다.

펑산산(중국)이 15주 연속 1위를 지킨 가운데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유소연(28·메디힐)이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렉시 톰슨(미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전인지(24·KB금융그룹)가 순위 변동 없이 뒤를 이었다.

김인경(30·한화)이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과 자리바꿈하며 7위를, 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11위까지 떨어졌다.



"잘싸웠다 男컬링, 마지막으로 日잡자"

아쉽게 예선 탈락…오늘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최종전

남자 컬링 대표팀이 접전 끝에 강호 스위스를 꺾었다. 그러나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20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컬링 예선 8차전 스위스와 경기에서 8-7로 승리했다.

스킵 김창민(33), 서드 성세현(28), 세컨드 오은수(25), 리드 이기복(23)이 나섰다. 김민찬(31)은 뒤를 받쳤다.

대표팀은 세계랭킹 5위이자 이날 경기 전까지 5승2패의 성적으로 예선 2위에 올라 있는 스위스를 상대로 힘든 경기가 예상됐다.

그러나 대표팀은 전날 이탈리아(8-6)를 꺾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선공으로 시작한 1엔드에서 스위스에 선취점을 내준 뒤 후공인 2엔드에서 점수를 뽑지 못했지만 3엔드에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후공으로 계속된 3엔드에서 마지막 스톤 만을 남겨둔 가운데 하우스 안에 3개의 스톤을 확보하며 빅엔드의 기운을 내뿜었다.

스위스는 최소한 더블 테이크 아웃을 노려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 개의 스톤도 건드리지 못한 채 하우스를 지나치는 큰 실수를 범했다.

대량 득점의 기회를 잡은 대표팀은 마지막 스톤마저 하우스에 집어넣으며 한번에 4득점했다.

4-1로 크게 앞섰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4엔드에서 1점을 빼앗긴 뒤 후공을 잡은 5엔드에서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 중앙에 드로했지만 김창민의 힘이 덜 미치며 역으로 3점을 빼앗겼다.

5-6으로 역전을 허용한 대표팀은 1점씩을 주고받으며 1점차 승부를 이어간 8엔드에서 승기를 잡았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전략을 펼친 스위스를 상대로 김창민이 완벽한 더블 테이크 아웃을 이끌어내며 앞선 5엔드의 실수를 만회했다. 2점을 획득하며 재역전에 성공한 대표팀은 9엔드에 동점을 내줬지만 10엔드 후공에서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 중앙에 정확히 위치시키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랭킹 16위인 한국은 2연승에 성공하며 4강 진출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상위 4팀이 5승 이상을 달성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스웨덴이 7승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영국, 스위스가 5승3패로 나란히 공동 2위에 랭크되며 4강에 한 걸음 다가섰다.

대표팀은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1일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뉴시스

분데리스가 팬들, 축구장에 테니스공 마구 투척…무슨일일까?

독일축구협회에 항의…경기 일부 월요일 편성 불만

독일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RB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열린 19일 오후(현지시간) 커머즈뱅크 아레나. 후반이 시작될 무렵 테니스공이 녹색 그라운드로 쏟아졌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테니스공은 수천 개에 달했다. 경기 진행요원들이 황급히 정리에 나섰지만 공이 쏟아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ESPN에 따르면, 후반 킥오프는 6분 간 지연됐다.

때 아닌 테니스공의 등장은 독일축구협회(DFB)를 향한 팬들의 항의 표시였다. DFB는 이번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경기 일부를 월요일에 편성했다. 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전은 올 시즌 첫 월요일 경기였다.

불만을 품은 팬들은 테니스공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월요일 경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며 DFB의 결정을 비난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홈팀 프랑크푸르트가 라이프치히를 2-1로 꺾었다. 팬들은 경기 후 일제히 휘슬을 불며 항의를 이어갔다.